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가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5. 4



Contents

SECTION I. 조사개요	2
------------------------	---

SECTION II. 조사결과	
1.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현황	2
2.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인천지역 기업 영향	3

[표 목차]			
<표 1>	트럼프 관세정책 현황(2025. 4. 1 기준)	2	
<표 2>	인천지역 對美 수출 현황(2024년)	3	

[그림 목차]			
<그림 1>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천지역 기업 영향	3	
<그림 2>	트럼프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출입 유형	4	
<그림 2-1>	업종별 트럼프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출입 유형	5	
<그림 3>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관세정책	6	
<그림 3-1>	업종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관세정책	7	
<그림 4>	트럼프 관세정책 구체화시 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	7	
<그림 4-1>	업종별 트럼프 관세정책 구체화시 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	8	
<그림 5>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	9	

I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가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현황을 조사하고, 정부대책 수립에 의견을 개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조사기간 : 2025. 2. 21(금) ~ 3. 7(금)
- 조사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조사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기업 194개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pm 6.88\%$ p

II 조사 결과

1.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현황

- 2025년 2월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3월 부과 확정되었고,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 자동차 등 대한 관세조치도 4월부터 시행 예정임
- 2024년 현재 인천지역 對미국 수출은 109억3,600만달러로 인천지역 전체 수출(595억2,400만달러)의 18.4%를 차지함
-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인천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고, 반도체, 의약품도 관세 부과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임

<표 1> 트럼프 관세정책 현황(2025. 4. 2 기준)

예고일	내 용	시행일
2.11)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	2.4부터 부과 시행
2.12)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4.2부터 부과 시행
2.10 ³⁾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	3.12일부터 부과 시행
2.19 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부과	부과시점 검토 중
3.24 ⁵⁾	베네수엘라 석유 및 가스 수입국에 대해 25% 관세 부과	4.2일부터 부과 시행
3.26 ⁶⁾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4.3부터 부과 시행

1) The White House(2025.02.1.).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tariffs-on-imports-from-canada-mexico-and-china/>
 2) The White House(2025.02.1.).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tariffs-on-imports-from-canada-mexico-and-china/>
 3) The White House(2025.02.1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justing-imports-of-steel-into-the-united-states/>
 4) 김동현 박상민 기자 "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반도체·의약품은 25% 이상", 연합뉴스, 2025.02.19.,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9010451071>
 5) The White House(2025.03.2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imposing-tariffs-on-countries-importing-venezuelan-oil/>
 6) The White House(2025.03.2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djusting-imports-of-automobiles-and-automobile-parts-into-the-united-states/>

<표 2> 인천지역 對美 수출 현황(2024년)

MTI 3단위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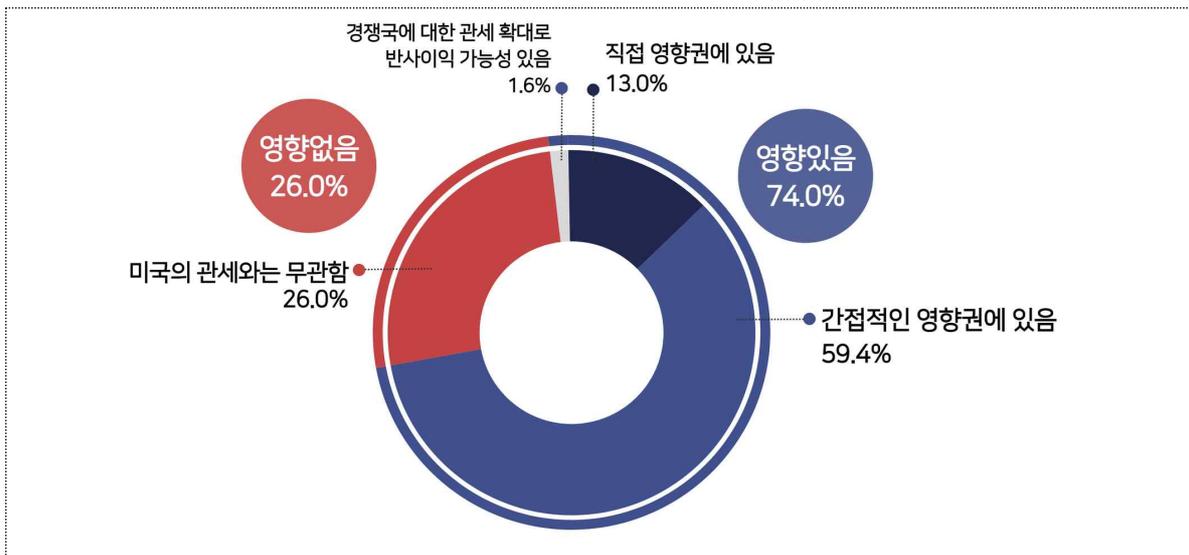
순위	품목명	인천지역 전체 수출			인천지역 對美 수출			
		수출금액(A)	비 중	전년대비	수출금액(B)	비 중	비 중(B/A)	전년대비
1	자동차	7,121	12.0	-2.4	4,105	37.5	57.6	-5.5
2	농약및의약품	5,552	9.3	40.4	1,154	10.6	20.8	44.8
3	반도체	17,690	29.7	30.9	1,040	9.5	5.9	491.1
4	건설광산기계	1,378	2.3	-26.9	532	4.9	38.6	-32.9
5	자동차부품	1,092	1.8	-19.7	378	3.5	34.6	3.0
6	철강관	2,883	4.8	-5.3	331	3.0	11.5	8.8
7	항공기및부품	716	1.2	96.6	320	2.9	44.7	95.5
8	원동기및펌프	1,016	1.7	6.9	289	2.6	28.4	-4.5
9	비누치약및화장품	2,015	3.4	13.9	238	2.2	11.8	19.5
10	산업용전기기기	837	1.4	-21.3	224	2.0	26.8	-49.0
11	기 타	19224	32.3	3.3	2325	21.3	12.1	0.6
합 계		59,524	100.0	10.6	10,936	100.0	18.4	7.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2.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인천지역 기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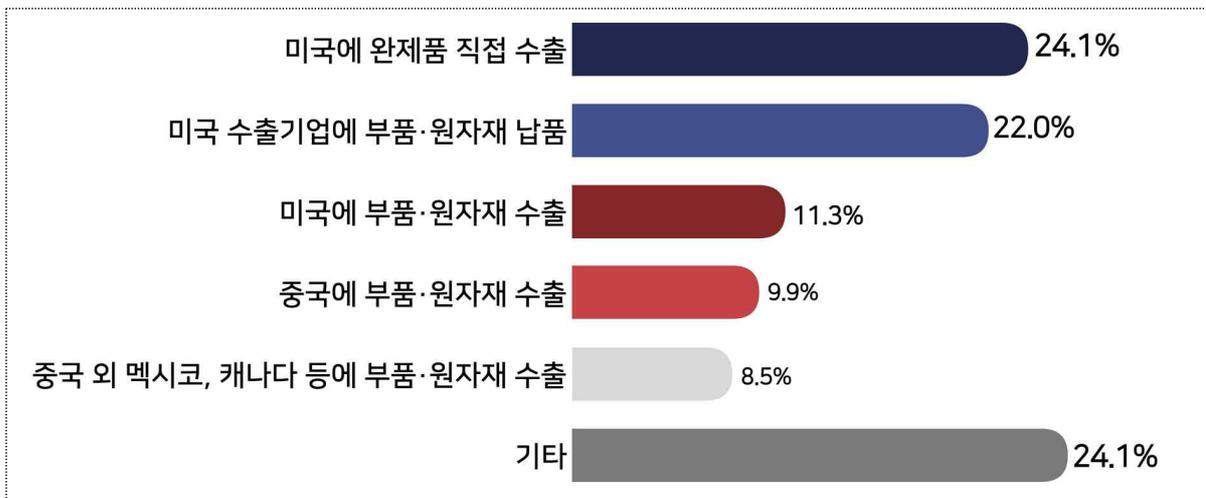
- 인천지역 기업의 74.0%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영향이 있다’(‘직접 영향권에 있음’(13.0%),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59.4%), ‘경쟁국에 대한 관세 확대 로 반사이익 가능성 있음’(1.6%))고 응답했으며, ‘미국의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6.0%로 나타남

<그림 1>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천지역 기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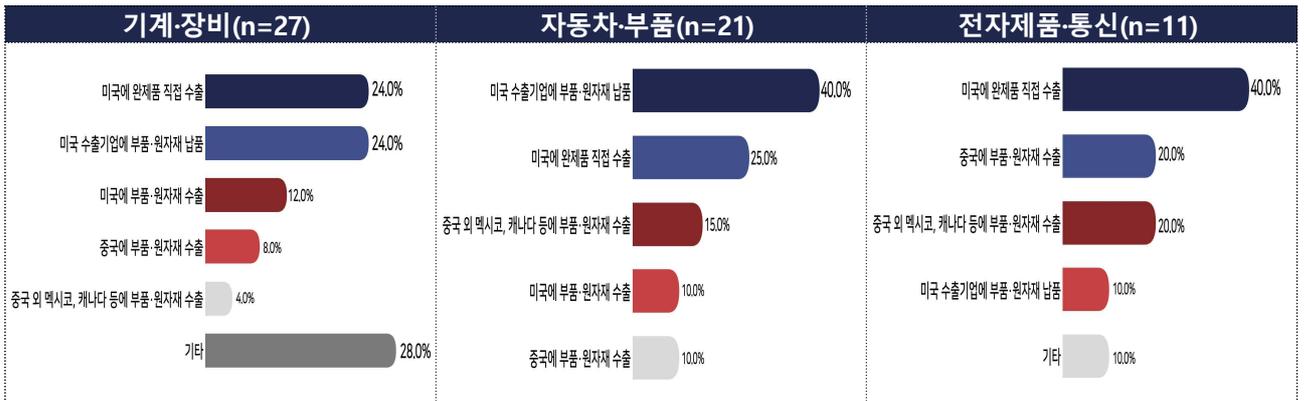
-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향후 대미 수출기업뿐 아니라 대미 수출품에 들어가는 부품·원자재 생산기업, 중국으로의 부품·원자재 수출기업, 그리고 내수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남
-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영향을 받는’(74.0%) 기업들의 주요 수출입 유형으로는 ‘미국에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2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어서,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22.0%),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11.3%),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9.9%), ‘중국 외 멕시코 및 캐나다 등에 부품·원자재 수출’(8.5%) 순으로 나타남
- ‘기타’(24.1%) 유형의 경우, 내수기업(미국·중국에서 원부자재·장비 수입, 미국 수출기업에 기계 납품 등)이 대부분이며, 미국·중국 외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임

<그림 2> 트럼프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출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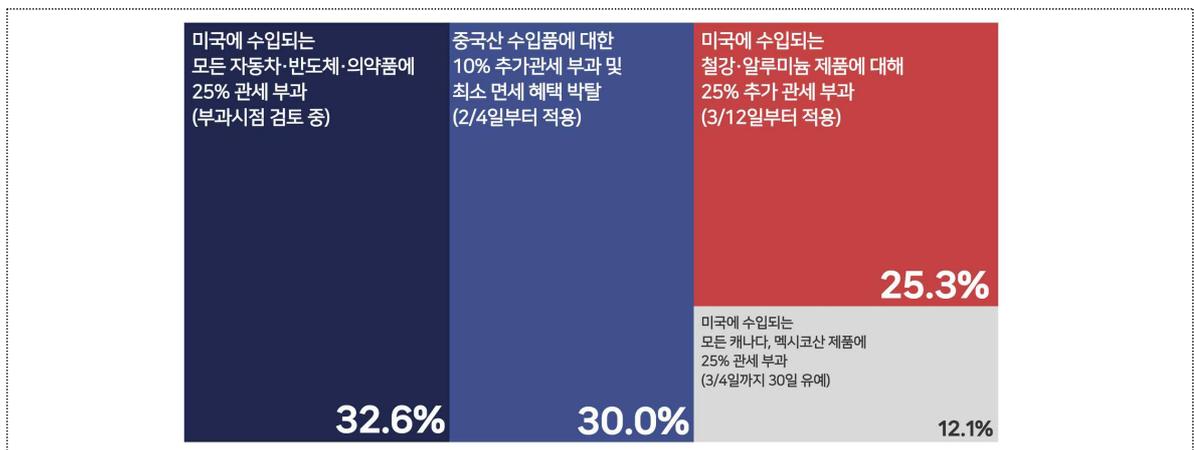
- 인천지역 제조업 주력 업종인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전자제품·통신 업체의 수출입 유형을 살펴보면, 기계·장비 업종은 ‘미국에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전자제품·통신 업종은 주로 ‘미국에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동차·부품 업종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기계·장비 : ‘미국에 완제품 직접 수출’(24.0%) =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24.0%) >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12.0%) >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8.0%) > ‘중국 외 멕시코 및 캐나다 등에 부품·원자재 수출’(4.0%)
 - 자동차·부품 :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40.0%) > ‘미국에 완제품 직접 수출’(25.0%) > ‘중국 외 멕시코 및 캐나다 등에 부품·원자재 수출’(15.0%) >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10.0%) =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10.0%)
 - 전자제품·통신 : ‘미국에 완제품 직접 수출’(40.0%) >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20.0%) = ‘중국 외 멕시코 및 캐나다 등에 부품·원자재 수출’(20.0%) >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10.0%)

<그림 2-1> 업종별 트럼프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출입 유형



- 트럼프 관세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74.0%) 기업들의 32.6%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부과’가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
- 다음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30.0%),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25.3%),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12.1%)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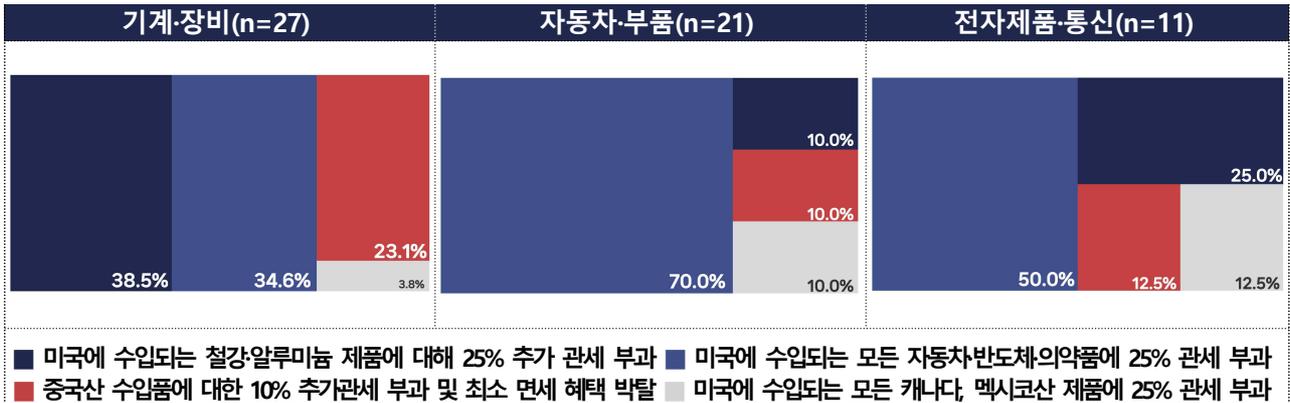
<그림 3>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관세정책



- 업종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경우, 자동차·부품과 전자제품·통신 업종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기계·장비 업종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남
 - 기계·장비 :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38.5%)
 - >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부과’(34.6%)
 -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23.1%)
 - >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3.8%)
 - 자동차·부품 :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부과’(70.0%)
 - >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10.0%)
 -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10.0%)
 - =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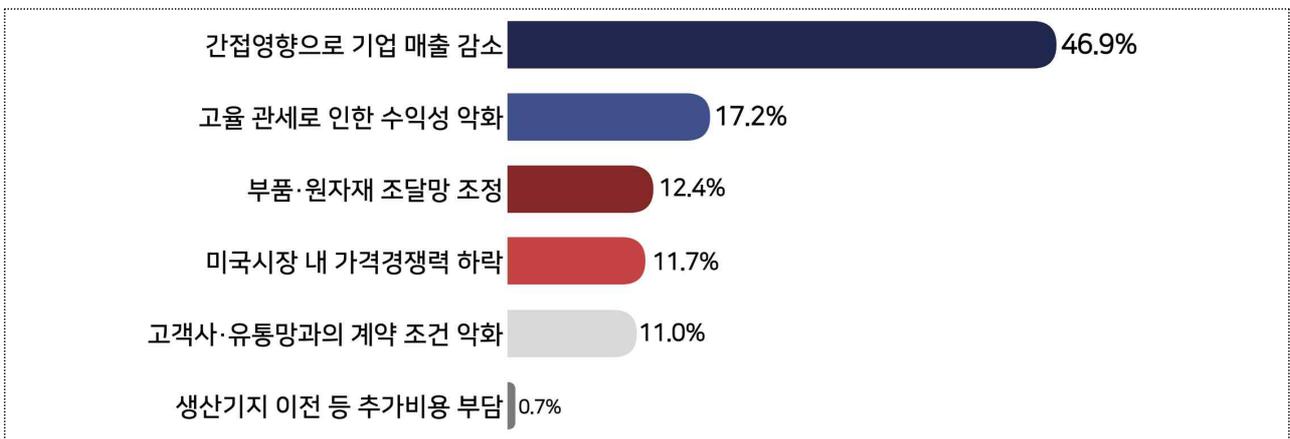
- 전자제품·통신 :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부과’(50.0%)
 - >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25.0%)
 -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12.5%)
 - =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12.5%)

<그림 3-1> 업종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관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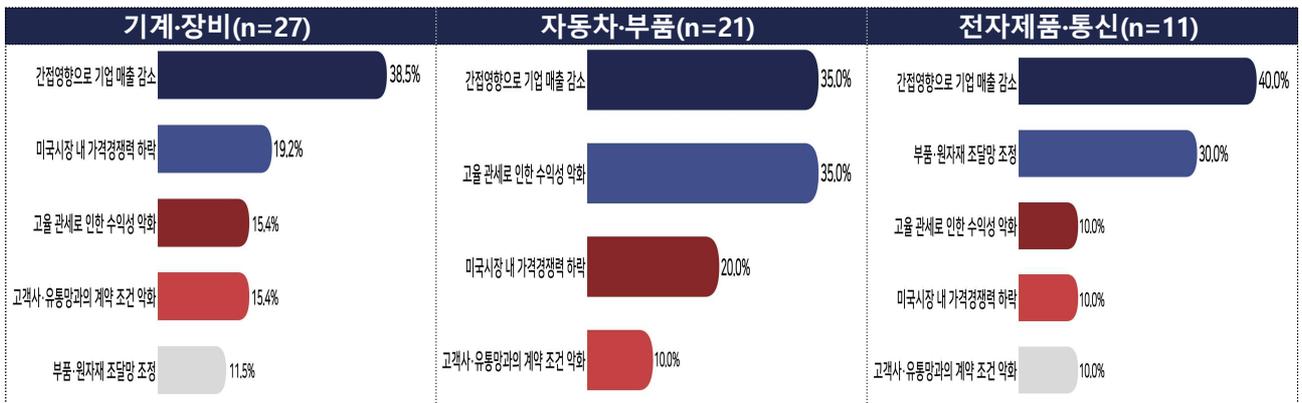
-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영향을 받는’(74.0%) 기업들은 관세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었을 때 ‘간접영향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46.9%)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남
- 다음으로,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17.2%), ‘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12.4%),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11.7%), ‘고객사·유통망과의 계약 조건 악화’(11.0%), ‘생산기지 이전 등 추가비용 부담’(0.7%) 순으로 조사됨

<그림 4> 트럼프 관세정책 구체화시 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



- 한편,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전자제품·통신 업종 모두 ‘간접영향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우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두드러짐
- 기계·장비 : ‘간접영향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38.5%) >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19.2%) >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15.4%) = ‘고객사유통망과의 계약 조건 악화’(15.4) > ‘부품 원자재 조달망 조정’(11.5%)
- 자동차·부품 : ‘간접영향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35.0%) =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35.0%) >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20.0%) > ‘고객사유통망과의 계약 조건 악화’(10.0%)
- 전자제품·통신 : ‘간접영향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40.0%) > ‘부품 원자재 조달망 조정’(30.0%) >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10.0%) =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10.0%) = ‘고객사유통망과의 계약 조건 악화’(10.0%)

<그림 4-1> 업종별 트럼프 관세정책 구체화시 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



- 트럼프 관세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74.0%) 기업들의 46.9%는 ‘아직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며, 28.7%는 ‘아직 대응계획이 없는’것으로 나타나, 응답 기업들은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원가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 중’인 기업은 20.3%로 조사되었으며, ‘현지 생산, 시장다각화 등 근본적인 관세회피 대응책을 모색 중’인 기업은 3.5%에 그침
 -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전자제품·통신 업종 모두 관세 정책 대응 수준은 전체 업종과 동일한 흐름을 보임

<그림 5>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

